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 아동 애착 안정성의 조절효과*

김 우 경

방 희 정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 불안,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어머니의 불안과 아동의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6개월에서 60개월의 학령 전 아동을 둔 어머니 14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 불안 척도,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척도,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를 사용했다. 연구결과, 어머니 불안은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과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과 유의하게 큰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수준에 따라 불안한 어머니를 둔 학령 전 아동이라도 불안 및 우울 문제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정서 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애착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주요어 : 어머니 불안, 학령 전 아동, 애착 안정성, 불안, 우울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E-mail: hjbang@ewha.ac.kr)

I. 서론

학령 전기는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사회활동을 경험하며 대인관계적인 기술을 배우는 중요한 발달적 시기이다. 아동들은 학령 전기 때 영아기 시절에 형성한 주 양육자(어머니 혹은 조부모 등)에게로만 향했던 애착을 어린이집 교사나 또래 아이들에게 넓히면서 중요한 양육자가 아닌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초적인 사회적인 기술과 예의범절을 배우게 되고 주요한 양육자가 아닌 타인에게도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신뢰감은 추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히 맺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발판이 된다. 이 시기에 불안 및 우울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 기술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정서가 불안정하여 쉽게 위축되거나 불안해지며 과다하게 활동하거나 부주의한 아동들은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 혹은 같은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원만하고 적응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을 박탈당할지 모른다. 더불어 이러한 아동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지 못하며, 안정된 자존감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적인 상황을 불편해하면서 피하거나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적응적인 또래 관계를 맺고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들

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또래의 거부, 학업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이후 발달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Broidy et al., 2003).

학령 전 아동의 정서 문제에 기여하는 요인은 아동이 태생적으로 고유하게 갖고 있는 기질적인 요인과 후천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분류된다.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높은 불안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이론인 ‘삼원 모델(tripartite model)’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은 부정적인 감정(negative affect; NA)을 공유하고, 우울이 갖고 있지 않은 불안만의 고유한 요소는 생리적인 각성(arousal)이며, 불안한 감정에는 없는 우울의 고유한 요소는 긍정적인 감정(positive affect; PA)의 부재라고 본다(Clarke & Watson, 1991). 즉, 불안한 어머니는 각성 수준이 높고 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머니에 비해 아동을 일관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어머니의 불안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어머니의 불안감 수준과 학령 전 아동의 정서적 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18개월에서 26개월 된 걸음마기와 그들의 비 임상군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Rottblatt(2006)은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을 결합시킨 변인은 걸음마기의 정서 조절 방법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춘 조절, 저항, 스스로 달래기, 가까움 추구하기, 주의 전환, 탐색, 좌절시키는 대상에 집중하기, 회피와 연관

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불안 및 우울은 걸음마기의 얼굴 표정과 발성을 통해 관찰한 걸음마기의 정서적인 고통과도 연관성이 없었지만, 걸음마기가 사용하는 정서 조절 전략의 개수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Mount, Crockenberg, Jo와 Wagar(2010)는 어머니의 불안과 걸음마기의 억제된 기질이 만 2세 6개월 된 걸음마기의 불안 및 우울을 예측하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이 매개, 조절, 곡선적 효과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는데, 어머니의 불안은 CBCL 2-3으로 측정한 걸음마기의 불안 및 우울과 철수 하위척도를 합한 변인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1개월에서 10세까지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Hirshfeld, Biederman, Bordy와 Faraone(1997)은 어머니의 불안과 아동의 정서 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불안 장애를 지닌 어머니를 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불안 장애를 지닌 어머니들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에게 비난을 많이 보이면 아동이 더 많은 장애를 갖게 되는 반면, 불안 장애가 없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보이는 비난의 정도에 따라 아동이 갖는 장애의 수가 많아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전술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에,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양육 민감성의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연구된 대상의 연령 혹은 정서적인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과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불안과 아동의 정서 문제 간을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이 작용함을 시사하며, 매개 혹은 조절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 민감성의 영향을 완충하는 변인이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Bowlby의 애착이론은 불안한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간 조절 변인을 찾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애착 이론에서는 영아기 때한 부모와의 관계경험으로부터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영아기 이후(학령 전기 포함)에는 애착이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심리도식으로 굳어져 신뢰감 및 자존감 형성, 사회성 및 정서 발달 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애착 안정성은 애착 대상의 가용성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애착 대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애착 안정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애착 행동 체계가 적응적으로 기능하며, 안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내적 작동 모델은 애착 대상과의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해 형성되고, 자신과 애착 대상, 애착 관계에 대한 지식들로 구성되며, 이를 토대로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며 계획을 세운다(Rothbard & Shaver, 1994). 정서적으로 가용적이며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지지적인 애착 대상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유능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내적 작동 모델을 갖게 되는 반면, 애착 대상으로부터 거절을 많이 당했던 아동은 자신이 가치 없고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실행 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Bretherton et al., 1990).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영아기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학령 전 아동은 어머니가 불안하여 비 일관적인 양육을 하더라도,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 밑바탕이 되는 자존감이 높아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은 어머니의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상관이 있다고 보고된 점에서 지지된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Ainsworth 등(1978)의 애착 유형에서 불안정 저항 애착을 지닌 아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Scher와 Maysless(2000)은 이스라엘의 저항 애착 및 안정 애착 영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영아를 둔 어머니는 안정 애착의 영아 어머니들보다 분리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tevenson-Hinde, Shouldice와 Chicot(2011)은 어머니의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 애착의 연관성을 50개월에서 52개월 된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어머니의 우울을 통제한 고유한 불안은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Shamir-Essakow, Ungerer와 Rapee(2005)는 아동의 성을 통제한 어머니의 특성 불안과 Cassidy와 Marvin(1992)이 제안한 아동의 모든 애착 유형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는데, 저자들은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어머니 불안을 측정하는 STAI(the Trait version of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가 불안만을 측정하지 않고 우울과 자신감의 부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일반적인 부정적 감정/고통을 측정했다는 한계

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hamir-Essakow 등(2005)의 연구를 고려하여 어머니의 우울이나 다른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한 어머니의 고유한 불안을 측정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갖고 있는 애착의 질이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과 아동의 발달문제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여부를 밝히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NICHD의 거대한 연구 표본을 대상으로 한 Milan, Snow와 Belay(2009)의 종단연구는 학령 전 아동의 애착이 어머니의 우울과 학령기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학령 전 아동이 36개월 때 수정된 낯선 상황 절차로 애착유형을 측정하였고, 아동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보고식 방식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우울한 증상과 학령기 아동의 우울 문제 간의 관계를 학령 전 아동의 애착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연구한 Woodhouse, Ramos-Marcuse, Ehrlich, Waner와 Cassidy(2010)는 AAI로 측정한 청소년의 애착이 부모의 우울/불안 증상과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부모 모두 불안 증상이 높거나 한 부모가 불안 증상이 높고 다른 부모가 우울 증상이 적었을 때 조절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청소년의 애착이 부모의 우울/불안과 청소년의 우울/불안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지도 분석하였는데, 어머니에 대해 갖는 청소년의 애착은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의 우울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한 어머니를 둔 학령 전 아동의 우울/불안을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인 청소년기보다 더 어린 학령 전기 아동을 연구함으로써 아동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려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어머니의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36개월에서 60개월의 학령 전 아동을 둔 어머니 143명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의 협조를 통해 모집하였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87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수거된 설문지들 중 40부의 자료는 답변이 불성실해 제외되었고, 4사례는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143명(76.5%)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학령

전 아동은 남아 80명, 여아 63명이며, 남아의 평균 개월 수는 50.0개월($SD = 7.52$), 여아는 52.2개월($SD = 7.30$)이었다. 학령 전 아동의 월령은 36개월에서 60개월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37.1%가 36개월에서 48개월에 해당되었고, 62.9%가 49개월에서 60개월에 포함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84.6%가 4년제 대졸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고, 경제적 지위가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연구 도구

어머니 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불안을 설명함에 있어 삼원 모델을 적용하였고, 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진 Zigmond와 Snaith(1983)가 제안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를 오세만, 민경준 및 박두병(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과 우울이 공유하는 특성인 부정적인 감정상태(negative affectivity; NA)가 통제된 채로 불안과 우울이 각기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Stevenson-Hinde et al., 2011). 모두 14개의 문항으로 홀수번호 7개는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HAD-A)이며, 짝수 번호 7개는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HAD-D)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4점 척도(0~3점)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번안된 HAD-A 척도와 SAS(Self-Rating Anxiety Scale)간의 상관계수는 .79($p < .01$)로 HAD-A가 불안 측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오세만 등, 1999). HAD-A 척도의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척도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Waters와 Deane(1985)이 제작한 애착 Q-set (Attachment Behavior Q-set: AQS)의 개정판을 이영, 박경자 및 나유미(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애착행동을 기술하는 9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 관찰자 또는 어머니가 아동이 평소에 보이는 애착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일치하지 않음)에서 9점(일치함)까지 각 점수마다 10장의 카드를 분류한다. 이후 분류한 점수와 준거점수간의 상관에 의하여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한다. 학령 전 아동의 행동을 가장 잘 평가하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보고한 연구(Teti & McGourty, 1996; Waters, Vaughn, Posada, & Kondo-Ikemura, 1995)가 있었고, 국내연구에서 관찰자와 어머니간의 분류점수 일치도가 .73(이정희, 1994), .75(이영, 신은주, 나중혜, 1994)로 높게 나타나 어머니가 ASQ를 직접 분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준거점수는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된 국내준거점수(이영 등, 1997)를 활용하였다. 나유미(1996)의 연구에서 미국준거점수와 국내준거점수간의 상관은 $.90(p < .001)$ 로 나타났다.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부모용 유아 행동평가척도를 오경

자,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2009)이 번안한 K-CBCL 1.5-5를 사용하였다. K-CBCL 1.5-5는 1세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유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리커트 3점 척도(0점: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의 부모 보고식 질문지로, 총 100문항이며, 내재화 문제(정서불안정, 불안 및 우울, 신체 증상, 위축)와 외현화 문제(주의집중, 공격성)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 및 우울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불안 및 우울의 Cronbach's α 는 .7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본 연구자가 제작한 Q-set 분류 방법과 관련된 설명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령 전 아동을 둔 어머니 20명을 무선적으로 표집하여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명(80%)의 어머니들이 애착 Q-set을 스스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본 연구의 설문지 배포 및 수거는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어린이집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는데, 설문지는 학령 전 아동과 어머니의 인적사항, 어머니 불안 척도, 본 연구자가 제작한 애착 Q-set 분류 방법 설명서와 90장의 Q-set 카드, 학령 전 아동의 내재화 문제 행동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가설에 따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학령 전 아동 애착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1단계에는 예측변인인 어머니 불안을 투입하고, 2단계에는 조절변인인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3단계에는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대상인 어머니들의 불안점수 평균은 6.18로 오세만 등(1999)의 연구에서 정상 군 성인의 불안점수 평균이 4.87로 나온 것과 비교하여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윤진영(2000)의 연구대상인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점수 평균이 .39였던 것에 비해 조금 높았고, 본 연구대상인 학령 전 아동들의 불안 및 우울 점수는 정이은(2007)의 연구에서 비 우울 집단의 어머니들이 보고한 유아들의 불안 및 우울 점수 평균이 1.82였던 데에 비해 다소 높은 것

표 1. 측정 변인들의 점수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43$)

측정변인	가능한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불안	0-21	6.18	2.89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0-1	.49	.17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0-16	4.36	2.24

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불안과 다른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 불안은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r = .33$)과 중간 크기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 불안이 높을수록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불안은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유의미하게 낮은 부적 상관($r = -.25$)을 보이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 불안이 높을수록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낮았다.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r = -.52$)은 유의미하게 큰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낮을수록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정도가 높았다.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143)

	1	2	3
1. 어머니 불안	-		
2. 학령 전 아동의 애착안정성	-.25**	-	
3.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33**	-.52**	-

** $p < .01$.

어머니의 불안과 학령 전 아동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학령 전 아동 애착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에 의해 제안된 방식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에는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을 투입하였으며, 1단계에는 예측변인인 어머니 불안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는 조절변

인인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추가로 투입했으며, 마지막 3단계에는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편차점수를 곱하여 형성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다.

전체 분석에서 공차한계는 .16~.94, VIF는 1.07~6.42로 나타나 공차한계는 0.1이상, VIF는 10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표준화 계수(B)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표준화계수인 β 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한 것이므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단순 기울기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Barron, Frazier, & Tix, 200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투입한 어머니 불안의 비표준화 계수(B)가 .26으로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 불안은 아동 불안 및 우울 변량의

표 3.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에 대한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 애착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 (N = 143)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단계	B	SE	β	ΔR^2	F
어머니 불안	1	.26***	.06	.33	.11***	17.19***
어머니 불안	2	.16**	.06	.21	.21***	32.30***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628***	.97	-.47		
어머니 불안	3	.44*	.13	.57 -.26 -.40	.02*	23.88***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3.48***	1.56			
어머니불안×학령 전 아동 애착 안정성		-.93*	.41			

* $p < .05$. ** $p < .01$. *** $p < .001$.

11%를 설명해주었다. 2단계의 아동의 애착 안정성의 경우 비표준화 계수가 -6.28 로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아동 불안 및 우울에 대해 21%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의 어머니 불안과 아동 애착 안정성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화 계수는 $-.93$ 로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3$).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호작용의 추가 설명량은 2%로 이는 어머니 불안과 아동 애착 안정성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주 효과를 제외하고도 전체의 2%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학령 전 아동 애착 안정성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¹⁾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우선 회귀방정식의 Z값에 조절변인의 최대값으로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더한 값을 넣고, 최소값으로 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값을 넣어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고/저 수준에 따른 두 개의 회귀식을 만들었다. 고 수준의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의 회귀 방정식은 $y = -0.2X - 6.54$ 이었으며 저 수준의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의 회귀방정식은 $y = 0.1X - 5.35$ 였다.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의 상하에 따라 어머니 불안이 높고 낮을 때의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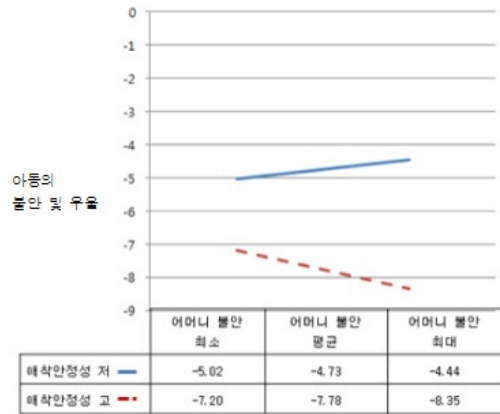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령 전 아동 애착 안정성의 조절효과

있다. 고 수준의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집단의 회귀식 기울기는 -0.2 로 어머니 불안이 높을수록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저 수준의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집단의 회귀식 기울기는 0.1 로 어머니 불안이 높을수록 불안 및 우울 문제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X값으로 예측변인인 어머니 불안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값과 1표준편차 더한 값을 넣어 좌표를 만들었고(어머니 불안의 최소값 3.29, 최대값 9.07)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6~60개월의 학령 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학령 전 아동의 애착

1) $y = (b_1 + b_3Z)x + (b_2Z - b_0)$, b_1 은 예측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_2 는 조절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_3 는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_0 는 상수 값, Z 는 조절변인

안정성이 조절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불안은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과 중간크기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불안장애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Hirshfeld 등(1997)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일반집단의 어머니로 하여, 불안장애를 지닌 어머니를 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집단의 어머니의 아동들에게까지도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인 시사점이 있다.

한편, Rottblatt(2006)는 생후 18개월에서 26개월 된 걸음마기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학령 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걸음마기 아동은 학령 전 아동에 비해 인지적으로 덜 성숙한 시기로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이나 목소리를 인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함에 있어 학령 전 아동에 비해 미숙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와 측정하는 내용이 본 연구와 달랐던 점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Rottblatt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을 결합시킨 변인을 사용하였으며, 걸음마기의 정서적인 고통을 얼굴 표정과 발성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과 유의미하게 큰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맺은 애착 안정성이 학령 전

시기의 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Colanresi 등(2011)의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의 불안정 애착과 불안간의 관계가 중간 크기의 부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나타난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애착 안정성은 학령기의 정서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에 대한 어머니 불안의 설명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 관계에 대해 유의한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 수준에 따라 불안한 어머니를 둔 학령 전 아동이라도 불안 및 우울 문제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 시사된다.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불안한 어머니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절해주어, 어머니의 불안이 크더라도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높다면 아동이 불안 및 우울 문제를 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이 생애 초기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어머니의 높은 불안으로 인한 민감하지 못한 양육 행동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을 내포한다.

이는 본 연구와 어머니 우울을 변인으로 하여 종단연구를 한 Milan 등(2009)이 36개월 때 측정한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유형이 어머니의 우울과 학령기 시기의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밝힌 결과와 유사하다.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맺은 애착 안정성의 질은 청소년의 정서적인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선행연구

구가 있다.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Woodhouse 등(2010)은 청소년의 애착 안정성이 부모의 불안 및 우울과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 관계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정서 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국내에는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간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진행되었으나(유현숙, 2006; 허서옥, 전예화, 2001) 어머니의 일반적인 불안에 따른 학령 전 아동의 정서문제를 밝힌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도 어머니의 불안과 학령 전 아동 발달 간의 연관성을 본 연구는 최근에서야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학령 전 아동에게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가 불안 수준이 높더라도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면, 자녀가 우울 및 불안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시사된다. 본 연구 결과는 애착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연구적 시사점이 있다. 아동은 학령 전기 때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맺는 애착의 질에 따라 환경의 변화를 덜 받을 수 있으므로, 생애 초기 아동에게 민감한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이 생애 초기였을 때에는 민감하게 양육을 하여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졌으나, 아동이 학령기 전기인 시점에서 직업적(경제 활동 등) 혹은 가정적인 변인(예, 둘째 출산 등)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불안을 경험하는 학령 전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불안한 어머니가 어떻게 학령 전 아동과 안정적인 애착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아동이 생애 초기였을 때에는 불안감이 없다가 학령 전기에 스트레스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성격적 혹은 기질적으로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일부 아동은 생애 초기에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양육자(예, 가사도우미, 조모 혹은 아버지 등)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지 모른다. 옥정(2012)의 연구에서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유아의 발달결과를 예측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유아의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주로 아동의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24개월 이하의 영아 혹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36~60개월의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령 전 아동기 때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들은 이후 발달에서 지속적으로 부적응적인 문제를 보일 수 있으므로 학령 전 아동기 발달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또래관계 형성을 시작하는 학령 전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고, 학령 전 아동기 발달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었다.

반면,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의 표집수와 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적고, 서울 강남 지역에 사는 중상위계층(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여유가 중상위권)의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양한 계층의 학령 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 다소 제한이 있다. 그리고 아동의 애착 안정성 및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가족과의 애착 형성 여부, 어머니의 양육 시간과 경제수준, 아버지와의 관계 등의 변인을 통제했다면, 어머니 불안, 아동의 애착 안정성,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학령 전 아동의 애착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부모가 보고한 Q-sort를 사용하여, 객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제한이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는 검사자가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직접 평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도구의 신뢰성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이 어머니와 갖는 애착 관계를 애착 유형별로 살펴보고 애착 안정성 점수로 측정한 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학령 전 아동의 애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유형 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학령 전 아동의 애착을 유형 별로 나누어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에서 학령 전 아동의 애착 유형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나유미 (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김영아, 이진, 문수종, 김유진 (2009).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117-136.
- 오세만, 민경준, 박두병 (1999). 병원 불안-우울 척도에 관한 표준화 연구: 정상, 불안, 우울 집단간의 비교. 대한신경정신의학 학회, 38(2), 289-296.
- 옥정 (2012). 아버지 애착표상, 아버지 탐색민감성, 유아 애착안정성 및 유아발달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현숙 (2006).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 태도 및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영 (2000). 학령전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자기지각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한국유아학회, 18(2), 1-18.
- 이영, 신은주, 나종혜 (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아동학회, 15(2), 37-54.
- 이정희 (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이은 (2007). 유아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 일치도: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

- 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허서옥, 전예화 (2001).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인제논총*, 16(1), 287-296.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An integrated system of multi-informant assessment*.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ron, K. E., Frazier, P. A., & Tix, A. P.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Dodge, K. A., . . . Lynam, D. R.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A six 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245.
- Cassidy, J., & Marvin, R. S. (1992). *Attachment organization in preschool children: Procedures and coding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MacArthur Group on Attachment, Seattle, WA.
- Clarke, L. A., & Watson, D. (1991). Tripartite model of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metric evidence and taxonomic implic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3), 316-336.
- Colonesi, C., Draijer, E. M., Stams, G. J. J. M., Van, d. B., Bögels, S. M., & Noom, M. J. (2011). The relation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child anxiety: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0(4), 630-645.
- Hirshfeld, D. R., Biederman, J., Brody, L., & Faraone, S. V. (1997). Expressed emotion toward children with behavioral inhibition: Associations with matern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7), 910-917.
- Milan, S., Snow, S., & Belay, S. (2009). Depressive symptoms in mothers and children: Preschool attachment as a moderator of risk.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1019-1033.
- Mount, K. S., Crockenberg, S. C., Jó, P. S. B., & Wagar, J. (2010). Maternal and child correlates of anxiety in 21/2-year-old children.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3(4), 567-578.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 In W. H. Berman, & M. B. Sperling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Rottblatt, S. J. (2006).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ve-anxious symptoms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Scher, A., & Mayseless, O. (2000). Mothers of anxious/ambivalent infants: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child-care context. *Child Development*, 71(6), 1629-1639.
- Shamir-Essakow, G., Ungerer, J. A., & Rapee, R. M. (2005). Attachment,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2), 131-143.
- Stevenson-Hinde, J., Shouldice, A., & Chicot, R. (2011). Maternal anxiety, behavioral inhibition, and attachment.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3(3), 199-215.
- Teti, D. M., & McGourty, S. (1996). Using mothers versus trained observers in assessing children's secure base behavi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Child Development*, 67(2), 597-605.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 Q-methodology and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Monographs].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1/2), 41-65.
- Waters, E., Vaughn, B. E., Posada, G., & Kondo-Ikemura, K. (1995). Appendix D: Scoring key for Q-sort criteria and derived scales in the attachment Q-set and the attachment Q-set for infant macaques item sets.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 280-282.
- Woodhouse, S. S., Ramos-Marcuse, F., Ehrlich, K. B., Warner, S., & Cassidy, J. (2010). The role of adolescent attachment in moderating and mediating the links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1), 51-63.
- Zigmond, A. S., & Snaith, R. P. (1983).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7, 361-370.

1 차원고접수 : 2015. 08. 31.

수정원고접수 : 2015. 11. 16.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1.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Kim, Woo Kyung

Bang, Hee Jeong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anxiety,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depression; (2) the moderating effect of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depress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43 mothers who have preschoolers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three kinds of questionnaires. Maternal anxiety was measured by the 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 the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was measured by Q-sort, and the preschoolers' anxiety and depression was measured by CBCL 1.5-5. Th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depression.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ir anxiety and depression. Second,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preschoolers' anxiety and depression. In other words, a preschooler who had an anxious mother but had high attachment security with his mother would not have an anxiety and depression problem. The study af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a preschooler's affect problems and emphasized an importance of attachment theory.

Keywords: maternal anxiety,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anxiety, depression.